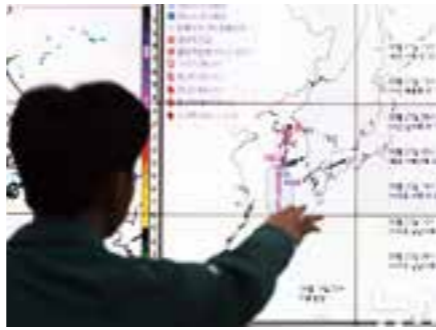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습식 더위’ 끌고 한반도 오는 태풍 종다리...

20일 오후 6시쯤 제주 근접 통과 남해안 등 최대 100mm 비 내려 제주남쪽만바다 태풍경보 너울·강풍 주의 당부 이날 늦은 저녁~밤 사이 열대저압부로 약화 예상



20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실 근무자들이 한반도로 북상중인 9호 태풍 '종다리'의 경로를 점검하고 있다.

북상중인 9호 태풍 '종다리'가 20일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겠다.

제주만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많은비가 내리겠다.

다만 종다리가 뜨겁고 습한 공기를 안고 오는 만큼, 많은 비에도 더위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김영준 예보분석관은 20일 수시

예보 브리핑에서 “제 9호태풍 종다리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제주 남쪽해상에 위치해 있다”며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하며 오는 21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엔 열대저압부(TD)로 바뀌어 우리나라를 통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중심기압 998hPa, 중심 최대풍속 초속 19m인 종다리는 시속 25km의 속도로 북상 중이다.

종다리는 이날 오후 6시경 제주도에 근접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더 발달하지 못하고 이날 저녁에서 늦은 밤 사

이 열대저압부(TD)로 약화하겠다. 오는 21일 오전엔 서해안 부근에 위치하다가 소멸할 전망이다.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엔 최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된다.

이들간태풍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제주도 30~80mm(많은 곳 전북서해안, 전남 남해안, 경남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중산간, 산지 100mm 이상)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강원내륙·산지 20~60mm ▲서해5도 10~40mm ▲충북 10~60mm(많은 곳 충남서해안, 세종·충남북부내륙 80mm 이상) ▲강원동해안 5~40mm다.

지형의 영향을 받는 제주산지와 남해안, 열대저압부(TD) 경로에 위치한 충남, 수도권 일부 지역에 특히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

종다리가 점차 가까워지며 제주 남쪽만바다엔 태풍 경보가 내려졌다. 제주 앞바다와 남해 서부, 서해 남부 일부엔 태풍 주

의보가 발효됐다.

특히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인 만큼, 해상엔 강풍을 동반한 최대 5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예보 분석관은 “해안 지역에선 저지대 침수와 안전사고 등에 주의하고, 해상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열대저압부가 빠져나간 뒤인 오는 22일에도 저기압에 의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김 예보분석관은 “북서쪽 중심으로 내리던 비가 오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다”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50mm의 비가 예상된다”고 했다.

22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10~50mm ▲제주도 10~40mm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5~40mm ▲강원동해안 5~30mm다.

한편, 종다리가 덥고 습한 공기를 몰고 오며 무더위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 예보분석관은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해서 발효된 상황인데, 이날 서울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태풍 종다리가 고온다습한 남서풍을 몰고 오며 밤낮없는 더위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과 대전, 구미의 낮 최고기온은 36도까지 오르겠다. 대구와 광주의 낮 최고기온도 각각 35와 34도 등 전국적으로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밤사이 기온도 크게 떨어지지 않으며 서울에선 30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질 순 있지만, 폭염과 열대야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여은 기자

코로나 백신 755만명분 확보...질병청장 “10월 접종 시작”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답변 코로나 백신 소요 예산4290억 정도 독감 백신과 동시 접종으로 접종률 ↑

정부가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755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 10월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영미(사진) 질병관리청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월부터 2024~2025년 코로나19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몇 명을 접종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백종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지 청장은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755만명분을 확보했고 고위험군 약 633만명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에 소요된 예산은 429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러 “10월 중 독감백신과 같이 동시 접종으로 시행해서 접종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했다.

백 의원이 제기되는 백신이 많다고 지적하자 지 청장은 “폐기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해 왔다”며 “앞으로도 잘 관리해서 수급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억1679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했으며 이 중 28.6%에 달하는 6197만회분이 폐기됐다. 유효기간 경과가 6160만회분, 접종 종료에 따른 미활용 29만회분, 백신 온도 이탈 민 용기 파손 등이 각각 4만회분으로 파악됐다.

현재 300개인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대상 의료기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지 청장은 “기관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2025년도 9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적극 도와 달라”고 부연했다. 황태용 기자

대구 수출 13개월 연속 하락...경북은 10개월 만에 반등

정밀화학원료 77% 감소 영향 경북, IT 제품 수출 증가세

대구지역 수출 감소가 13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반면 경북은 10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20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수출입 동향 보고서를 보면 7월 대구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5.8% 감소한 7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감소세가 13개월 연속 이어졌으나 감소폭은 전월(20.4%)보다 4.6%p 축소됐다.

주력 품목인 이차전지 소재의 기타정밀화학원료가 77% 감소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기타정밀화학원료는 2021년 12월부터 30개월 동안 대구의 1위 수출 품목이었지만 전기차 수요 증가세 둔화로 자동차부품에 자리를 내줬다.

수출 국가별로는 미국이 1억8000만 달

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1억5800만 달러), 베트남(5100만 달러), 멕시코(3400만 달러), 태국(3200만 달러)이 뒤를 이었다.

경북의 수출액은 34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해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만에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경북은 기타정밀화학원료(-54%) 부진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기기부품(380%)과 평판디스플레이(31.2%) 등 IT제품 수출 확대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알루미늄조각품(63.2%), 열연강판(11.6%), 냉연강판(10.1%) 등 금속·철강품목도 호조세를 보였다.

이근화 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차장은 “그 동안 지역 수출을 견인했던 이차전지소재부진에도 불구하고 경북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반도체·이차전지 제조용 장비, 반도체 부품, 의료기기 등 첨단 산업이 지역의 든든한 수출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 판로 개척 및 애로규제 개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명주 기자

구분	2022년	2023년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국	수출	6,835.9	4,63.5	500.1	549.5	494.7	521.2	542.4	503.5	3,574.8
	(증/감)	(6.1)	(-16.4)	(-7.7)	(-14.5)	(-13.9)	(-15.4)	(-6.0)	(-16.4)	(-13.0)
	수입	7,314.7	589.6	553.5	596.7	522.2	543.3	530.9	487.0	3,829.2
	(증/감)	(18.9)	(-2.7)	(9.5)	(-6.5)	(-13.3)	(-14.0)	(-11.7)	(-25.4)	(-10.4)
대구	수출	4,779.9	-126.2	-53.4	-47.3	-27.5	-22.1	11.5	16.5	-248.4
	(증/감)	106.4	8.4	10.1	11.5	10.0	10.5	9.4	8.6	68.5
	(증/감)	(54.1)	(5.2)	(48.3)	(31.0)	(17.1)	(16.6)	(5.1)	(-10.1)	(15.0)
	수입	812.7	7.0	6.8	9.0	9.4	8.4	7.3	6.9	54.9
경북	수출	25.3	1.4	3.3	2.5	0.7	2.1	2.1	1.6	13.6
	(증/감)	468.8	40.5	39.5	40.0	37.9	40.4	37.7	36.5	272.5
	(증/감)	(5.9)	(1.0)	(8.2)	(-19.9)	(-12.8)	(2.6)	(9.1)	(5.7)	(-2.2)
	수입	216.5	18.2	17.3	21.7	18.1	19.8	19.0	16.1	130.2
경북	(증/감)	(11.9)	(6.0)	(-2.5)	(12.8)	(-10.4)	(-7.5)	(0.2)	(-22.9)	(-4.0)
	수치	252.3	22.3	22.2	18.4	19.8	20.6	18.7	20.4	142.4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제공



대구교육청, 올해 '수능응시원서' 접수

원서 접수 8월22일~9월6일 까지 응시시스템 선택 영역 수 만큼 납부 교육청 접수자 카드·계좌이체 가능

대구시교육청은 11월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20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응시원서 접수는 22일부터 9월6일까지다. 응시원서 변경 신청 기간도 원서 접수 기간과 동일하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접수 마감일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원서 제출이 불가능하다. 수험생은 접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켜야 한다.

원서 접수처는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출신)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 인정자, 타시·도 출신자 중 대구 거주자,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등은 대구교육청이다.

접수 시 신분증, 여권용 규격(가로 3.5cm×세로 4.5cm) 사진 2장을 준비하고 소정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대구교육청에 원서를 제출하는 수험생과 대리접수자 등은 필요한 추가서류를 확인 후 준비하면 된다.

원서 접수 관련 사항과 각종 서식은 대구교육청 누리집에 게시돼 있다.

응시수수료는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응시생은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재학생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해당 학교에서 환불받고 기타 수험생은 원서 제출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바로 면제받을 수 있다.

응시수수료 납부 방법이 지난해 현금납부만 허용한 것과 달리 재학(출신)학교에 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대구교육청에 원서를 접수하는 응시자는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지정돼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미응시한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수능 응시 확인서 포함)가 제공되지 않는다. 나머지 영역은 수험생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지난해와 같이 시험영역별로 선택과목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응시원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하다.

국어 영역을 선택한 경우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중 1과목을, 수학 영역을 선택한 경우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을 선택한 경우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한 경우 성공적인 직업생활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황태용 기자



단체장 일정



최기문 영천시장은 21일 시민운동장에서 열리는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참석해 훈련상황을 참관하고 유사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철저한 훈련을 당부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21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을지연습 전시주요현안토의에 참석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군위군 빠르미향쌀 소보면서 첫 수확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소보면 위성리 이 재진 농가가 올해 첫 수확을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폭염등 이상기후로 벼의 재배·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드론을 활용한 2번의 공동

방제 등 군위군의 지원과 농가들의 노력으로 작년에 비해 더 많은 수확량을 확보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첫 수확한 "빠르미향쌀"은 충남 농업기

술원에서 품종 출원하였으며, 아밀로스 함량 12.7%로 낮아 밥이 찰지고, 누룽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도열병에 강하다. 또한, 7월 하순에 수확이 가능해 병해충 방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박재성 기자

‘전기차 공포’ 확산...차량 ‘테러’ 전기차주들 하소연

온라인 커뮤니티 등 관련 글 경찰에 신고 등 대응 하기도 일부 아파트 주차 금지 사례

최근 연이은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공포'가 확산한 가운데 차량에 '테러'를 당한 것 같다는 전기차주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전기차에 대한 테러인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전기차이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례도 다수 있어 차주들이 전기차 테러에 대한 공포 혹은 우려를 드러내는 모습이 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기차에 앙심 품은 사람 같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전기차주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8시 사이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는데, 자신의 차량과 다른 전기차까지 총 2대가 파손되었다고 한다.

A씨는 "8월 15일 오전 9시30분 가족과 여행 가려고 주차장에 가보니, 제 차를 포함한 전기차 2대 사이드 미러가 파손됐다. 톰머러 블랙박스 상에 새벽 2시30분께 충격에 의한 작동을 확

인했다"며 "다른 피해자 한 분은 피해가 크지 않아 피해 접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기차에 앙심 품은 사람이 테러를 한 것 같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전기차 사진이 올라왔다.

이어 "112에 경찰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며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해당 접수 건은 재물손괴범으로 이관됐다. 이 테러가 전기차를 꼭 짊어서 가해를 한 것인지 지나가다 훑김에 한 것인지는 모르나 전기차 차주로서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년 넘게 전기차 타면서 처음이다. 항상 밝은 곳에 주차하고, 차량 녹화기능을 계속 켜놔야겠다"고 덧붙였다.

20만명의 회원을 둔 전기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테러' 의심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커뮤니티 회원인 전기차주 B씨는 지난 15일 "아파트에서 주차해놓은 차량이 전기차라서 집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뒤 올린 글에서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되다보니 흥분해서 저런 표현을 했다. 오해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돼 사과드린다"고 썼다.

테러를 당한 것은 맞지만, 전기차라서 테러를 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전기차 커뮤니티에서는 "전기차 혐오가 심해서 혹시나 테러가 있을까봐 주차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프리미엄 커피티비티(연결)를 구독했다", "이젠 감시모드도 못 끄겠다" 등 차주들이 '테러'를 당할까봐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황이 이렇자 전기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지 고민하는 차주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자동차부품사 현대모비스 직원이 '와이프가 전기차를 팔라고 난리'라면서 "사람들 인식이 너무 나빠져서 와이프가 겁난다며 팔자고 한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한편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퍼지면서 일부 아파트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입차를 전면 금지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하인 전기차만 주차를 허용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충청남도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5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기차에 앙심 품은 사람이 테러를 한 것 같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전기차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영남대, 정부와 지자체 지원 재정지원사업 선정

협력 기반 지역혁신(RIS)사업 5년간 총 3316억원 플랫폼 관련

영남대학교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며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영남대에 따르면 2022년 대학 국책공모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RIS)사업 선정으로 국고와 지자체 지원금 등 5년간 총 3316억원 규모의 플랫폼 사업의 중심대학으로 사업을 이끌고 있다.

또 교육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INC3.0)에도 선정돼 6년간 24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도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으로 최대 8년간 160억원,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RLRC)으로 120억원 규모의 사업을 비롯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에코업 분야), 인문사회융합인재 양성사업(디지털 분야), 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사업 등에 선정돼 교육과 연구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올해에도 영남대는 굵직굵직한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돼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 선정으로 영남대는 2027년까지 금오공대와 함께 28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산업을 주도할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또 교육부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선정돼 첨단 바이오 의약산업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5년간 총 7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 밖에도 교육부의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글로벌 공생 분야), 고용노동부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한국연구재단의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3.0)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대구교육청, 군위 초·중·고 거점학교로 육성 노력

대부분 3~40명 미만 소규모 맞춤형 교육 지원할 계획

대구시교육청은 군위군 내 군위초·중·고를 거점학교로 육성해 군위군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제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군위군 관내 학교 중 군위초·중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초·중학교가 3~40명 미만의 소규모다. 이로인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선택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운영, 학생 맞춤형 동아리 활동이 어렵다.

또한 학교별 또래 집단의 부재로 학생 간 소통을 통한 협력학습 및 프로젝트 수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성장을 위한 교육에도 한계가 있어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이끄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군위초·중·고를 군위군의 거점학교로 지정해 학생 간 토론과 발표를 통한 협력학습, 창의적체험활동,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 학업면에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더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학생 개별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통학지원, 복지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을 위한 별도 TF를 구성 후 학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학 여건의 경우 통학버스 제배치 및 통학택

시를 지원하는 등 군위군 학생이 미래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위초·중·고의 특별실 증축 등 시설을 개선하고 복지 지원, 특색 프로그램 운영, 돌봄 시스템 구축, 학생 수 변동 추이를 고려해 군위초·중·고 분리 등 지원으로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걱정이 없는 군위군으로 만들어 타·시·도에서도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든다.

이와 함께 군위군 내 소규모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 공동통학구역 확대 등 거주지 이전 없이 군위초·중 재학을 희망할 경우 전학이 가능하도록 해당 학교 및 기관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학부 고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군위군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군위초·중·고에 다양한 교육 정책,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타·시·도에서도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군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경북대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 베트남과 업무 협약

한-베, 교류 프로그램 추진 기관 연계 인턴십 과정 운영

경북대학교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은 베트남 하이퐁 폴리텍대학 및 KIOT와 한국-베트남 뷰티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3개 기관은 ▲한-베 뷰티산업 발전 ▲K-뷰티 기술 이전 및 아카데미 설립 ▲K-뷰티 수출 및 시장 확대 지원 ▲문화 콘텐츠 연계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베트남 하이퐁 폴리텍대학은 뷰티케어과를

중심으로 베트남 내 K-뷰티 확산과 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베트남 교류 프로그램과 지역 뷰티 서비스 기관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KIOT는 디지털솔루션 개발 기업으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뷰티산업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경북대 황의욱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K-뷰티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베트남 내 K-뷰티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대학 간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창사 36주년 맞아

일·생활 양립 결의대회 개최

대구도시개발공사는 16일 창사 36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이 공사 대강당에 모여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1988년 설립된 전국 최초의 도시개발공사로 지난 36년간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공공주택건설 등을 통해 대구시민 복리증진을 이루며 내실 있는 공기업으로 성장했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창사 기념사를 통해 "오늘의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되기까지 노력해 온 임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격려하고, "향후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여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자"고 덧붙였다.

경북도농원 참외 소비트렌드 분석 세미나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9일 성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참외재배 농업인을 2백여 명을 대상으로 '참외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재배 기술과 참외 소비트렌드 분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참외연구회가 주최하고 성주 참외과채류연구소,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경북 대표 지역특화 작목인 참외의 안정생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조원호 참외마이스터가 '저온기 환경관리를 통한 참외 연속 착과' 강의에서 하우

스 환경관리가 어려운 겨울철 참외재배 노하우를 소개해 농업인들의 많은 호응을 끌어냈다.

올해는 잦은 비와 저온으로 생육이 부진해 참외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많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한 교류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에서 참외 소비 확대를 위해 '참외 소비트렌드 및 특징'을 주제로 발표하고, 참외 육종회사들은 '참외 신품종'을 소개해 농업인들의 참외 품종 선택에 도움을 줬다.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님들께...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 영 숙 | 편집인 김 성 용 | 부사장 조 여 은 | 편집국장 김 현 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열전 마무리

경주에서 열린 2024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지난 19일을 끝으로 15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21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전국 학교·클럽·동호인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610

개 팀이 출전해 1818경기를 펼쳤다. 경기는 1·2차로 나눠 토너먼트 방식이 아닌 조별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선수들은 성적 위주에서 벗어나 축구를 최대한 즐기고 만끽했다.

이렇게 전국 최대 규모의 유소년축구대회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알천구장을 비롯한 13개의 천연잔디구장이 마련돼 있기에 가능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민운동장, 스마트에어 돐, 알천구장 등에 11대 AI 카메라를 도입해 휴대폰 어플(HOGAK)에서 실시간 경기를 중계했다.



경주읍성, 복원 프로젝트 순항... 고철 야적장 철거 완료

동성벽과 북성벽 구간 진행 계림초 학습 환경 개선 효과 2030년까지 총 605억원 투입

경주읍성 복원 구간 내 위치한 고철 야적장이 철거되면서 복원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밖에도 학교정화구역에 점유했던 고철 야적

장의 철거로 계림초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크게 개선된 점도 이번 사업의 부수적인 효과다.

경주시는 2018년 9월에 복원된 경주읍성 324m 구간 이어 동성벽과 북성벽 215m 구간의 추가복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주읍성'은 북부동·동부동 소재 지방읍성으로 고려시대 축성돼 조선시대를 거쳐 근현대까지 경주의 역사와 함께해 온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경주읍성 복원사업은 2002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605억원이 투입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성벽 1.1km 복원, 치성 12곳, 문루 2곳 복원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복원 정비에는 146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 완료로 목표로 성벽 복원, 치성 4개소, 여장, 주변 정비, 경관 조명 설치가 포함된다.

시는 보다 효율적인 성벽 복원을 위해 구간 내

미보상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계림초 북측 북부동 1-35번지 내 위치한 고철 야적장이 토지 보상과 함께 철거되면서 북성벽 복원에 속도가 붙었다.

특히 이곳은 사적지 뿐 아니라 학교정화구역으로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시는 평가하고 있다.

시는 북부동 고철 야적장이 철거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북성벽 구간(계림초 복원-명사마을 봉황로 입구)의 발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읍성 복원을 통해 경주의 옛 모습을 회복하고 시가지 중심권 유적을 정비해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물론, 도심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 신라스토리 공모전' 전 국민 대상 개최

스토리 공모, 10월 31일까지 선정 작품, 신라문화제 등 활용



경주시가 전 국민 대상 '2024 신라스토리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연이나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발전 가능한 '신라'를 주제로 한 순수 창작 스토리라면 국

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

공모 방법은 △작품명 △작품개요 △등장인물 소개 △시놉시스를 양식에 맞춰 E-메일 (gucci5194@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응모작은 심사위원회의 1차, 2차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3개 작품을 선정한다. 심사 기준은 △독창성 △완성도 △시상성 △사실성 △가능성 △분류확정성 등 5가지 분야를 골고루 반영할 예정이다.

수상작 발표는 11월 13일이다.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경주시장상이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은 향후 신라문화제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에 활용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문화예술과(☎ 054-779-6073)나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2회 추경 2조 840억원 편성... APEC 정상회의 준비 중점

제1회 추경 대비 160억원 늘어 특별회계 2903억원 6억원 증액



경주시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조 84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추경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16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일반회계는 1조 7937억원으로 154억원이 증

액됐고, 특별회계는 2903억원으로 6억원 증액됐다.

이번 추경 예산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필수 준비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세입 재원은 △지방교부세 99억원 △국도비 보조금 49억원 △세출예산 구조조정(인건비 절감) 130억원 등이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먼저 △APEC 범업 분위기 조성 및 홍보 활성화 16억원 △경관 개선 및 가로수·녹지 관리 10억원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정비 16억원 △도로 경관 조명 및 가로등 보수 13억원 등이다.

이어 △APEC 대비 하천정비 5억원 △버스정류소 교체 등 교통시설 정비 3억원 △APEC 준비추진단 자치단체간 부담금 20억원 △기타 공원 정비 9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해 △대곡(간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17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67억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7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4억원 등 필수경비를 반영했다.

특히 시는 예비비 43억원을 편성해 향후 APEC 정상회의 국·도비 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일 시의회에 제출되며, 제284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APEC 정상회의 개최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준비기간이 촉박한 만큼 시의회와 협조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화랑별빛달빛기행 참가자 모집

답사지마다 15명씩 모집

경주시가 지역의 문화유산을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하반기 화랑별빛 달빛기행' 참가자를 모집한다.

화랑별빛 달빛기행은 문화유산해설사와 함께 매주 수요일 저녁 지역의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활동이다.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은 9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10회 운영되며, 답사지마다 15명씩 모집한다.

참가대상은 지역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청소년

과 가족이다.

참가신청은 이달 26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경주공공서비스예약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활동팀(054-779-617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 상반기에는 총 170명이 참가해 별빛달빛이 어우러진 자연 속에서 지역의 숨어있는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고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농협 경주, 상의와 쌀 소비 촉진 맞손

NH농협 경주시지부는 경주상공회의소와 함께 쌀 소비촉진에 나서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맺고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통해 경주 쌀 소비와 건전문화 정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행사에는 조현철 농협 경주시지부장과 조함정, 이상걸 경주상의 회장과 지역 상공인들

대표한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현재 농협은 범국민 아침밥 먹기, 쌀 가공식품 활성화 운동 등을 전사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역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약 5만t의 재고를 소진하고, 코로나 이전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60kg 회복으로 쌀값 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태풍 '종다리' ... 주민들 한 때 대피

제9호 태풍 '종다리'가 2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한반도에 북상하면서 토사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한 때 대피했다.

20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태풍으로 인한 시설 피해는 경남 양산의 토사 유출 1건이다.

이날 새벽 5시 40분께 양산시 덕계동 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토사가 도로 위로 쏟아졌다.

양산시와 경남도, 산단 관계자들은 장비를 투입해 오전 7시에 현장 복구를 완료한 상태다.

오전 7시 50분께는 경주시 불국동에서 산사태 우려로 주민 6세대(6명)가 하동마을화관으로 사전 대피했다가 1시간 뒤인 8시 50분께 전원 귀가하기도 했다.

안전 취약시설 곳곳도 통제됐다. 경주와 한라산 등 2개 국립공원 45개 구간, 부

산 하상도로 1개소, 경남 등둔치 주차장 6개소, 울산 등 산책로 45개소, 부산 계곡 1개소가 통제 중이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태풍 대처를 위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이날 낮 12시에 서귀포 남서쪽 부근 해상, 오후 6시에 서귀포 서쪽을 최대 풍속 19%, 강풍 반경 150~170km 규모로 지나가며, 21일 자정께 목포 서북쪽 부근 해상에 서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해안 찾은 피서객 수 지난해보다 24.4% 줄어

시장 주재 최초상황 보고 회의 현안 과제토의와 실제 훈련 등

올해 여름 경북 동해안을 찾은 피서객 수가 지난해보다 2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포항·경주시, 영덕·울진군 4개 시군의 24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51만 6896명으로 지난해 68만 3805보다 16만 6909명이 줄어 24.4%나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28만 5255명에서 21만 476으로 26.2%, 경주시가 10만 9989명에서

8만 6160으로 21.7%, 영덕군이 20만 8305명에서 15만 2661명으로 26.7%, 울진군이 8만 256명에서 6만 7599명으로 15.8% 줄었다.

경북도와 4개 시군은 올해의 경우 폭염이 이어지고, 해파리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해파리 쏘임 사고가 잦아 피서객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포항 영덕 청송 영양 울진 울릉



청송군 사과 경매 시작

청송군은 청송사과유통센터가 19일 청송군농산물공판장을 개장하고 2024년산 사과 경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판 첫날 사과 696 상자가 경매에 올라왔으며, 출하품종은 홍로가 주종을 이루었다. 20kg 상자당 평균 낙찰가격은 홍로 기준 102,400원에 거래됐다.

청송군 농산물산지공판장은 2019년 11월 개장한 지 5년 만에 출하물량이 4배 이상(1,905톤 ▶ 8,065톤) 증가하고, 공판장 이용능력은 군 전체 사과농가 4,600여 농가 중 1,500여 농가가 이용하는 청송사과산업의 핵심시설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난해는 봄철 저온피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탄저병 등 병충해로 전국 사과 생산량의 30% 정도 감소하며 농가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이에 우리군은 봄철 저온피해로 인한 결실불량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미세살수장치 및 열상방사판과 더불어 병해경감제를 지원하여 농가들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 및 재배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농업생산비 절감과 수취가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병문 기자



울릉군 우수 공무원 선발

울릉군은 19일 울릉군청에서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 감동서비스를 실천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선발”은 민원의 범접 처리기 한 단축, 민원 처리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평가하여 우수 직원을 선정하는 제도로,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도입했다.

시상은 매년 상반기 2회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은 6명이 선정되었다

상반기 평가 결과는 최우수 박병선 주무관, 우수 장세영 주무관, 우수 김동하 주무관, 장려 정다영 주무관, 장려 박민울 주무관, 장려 김관중 주무관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어 감사하다”라고 노고를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에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포항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 본격화

방문 진료 필요 대상자 발굴 퇴원환자 등 지역사회 연계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등

포항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의사회, 내집에서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북부지사, 포항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취약계층의

료돌봄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에 선정된 ‘노인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의 핵심 서비스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의료팀이 가정으로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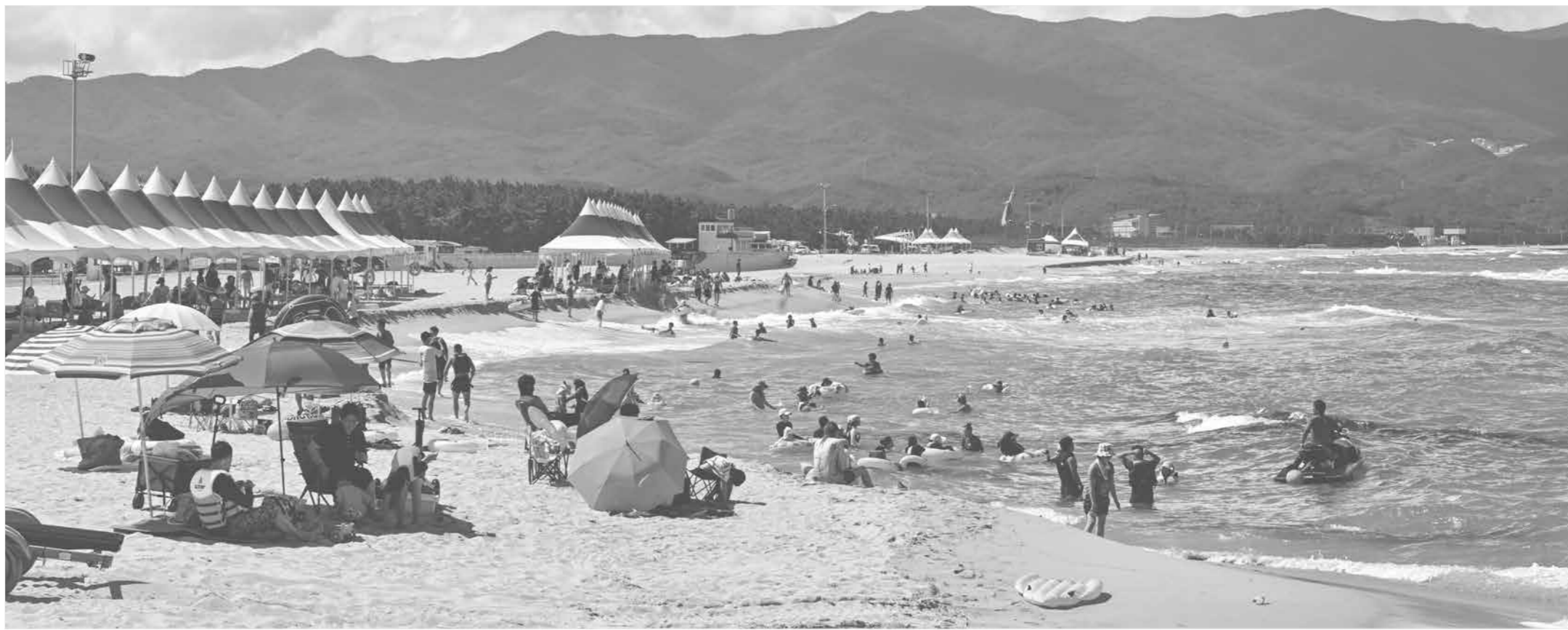
이날 협약 기관들은 상호 협력해 방문 진료 가필

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이들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 부담기 타비용(교투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강덕 시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

도록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노인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주거환경 개선 돌봄 ▲병원안심동행서비스, 긴급돌봄,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영덕군 7개 해수욕장 일제 폐장, 누적 15만여명 찾아

수상 안전요원 능력 강화 보호 슈트 지급 등 대응

지난달 12일 개장한 영덕군 관할 7개 해수욕장이 지난 18일을 기해 38일간의 운영을 마무리하고 일제히 폐장했다.

올해 전국 대부분의 해수욕장은 노무라입깃해파리와 보름달물해파리 등 독성을 가진 해파리의 대량 출몰로 흥행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됐지만, 영덕군의 경우 누적 방문 15만여 명을 기록해 피서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

같은 기간 영덕군은 긴급 예산을 투입해 해파리 퇴치에 나서서 한편, 해수욕장 해파리 이중 차단망 설치, 해파리 제거 안전관리요원 보호 슈트 지급 등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해파리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수상 안전요원 능력 강화, 합동 인명 구조 훈련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함을 기했으며, 각 해수욕장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다채로운 가족 단위 행사로 피서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고래볼 해수욕장의 해변 페스티벌, 백합줍기 체험, 비치사커대회, 대진 해수욕장의 해변 가요제와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 장사해

수욕장의 바비큐 페스티벌과 유아 풀장 등은 한여름의 무더위를 잊을 만큼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여러 악재 속에서도 깨끗한 바다와 수려한 백사장 등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영덕군은 관할 해수욕장 일제 폐장 이후에도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와 점검을 오는 25일까지 유지하고 수상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조여은 기자

영덕, 청춘남녀 ‘장르만 트레킹’ 눈길

영덕군이 저출생 대응 프로젝트로 야심 차게 추진하는 청춘남녀의 만남 ‘장르만 트레킹’이 지난 17일 영덕군 남정면 웰빙문화테마마을에서 첫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장르만 트레킹’은 영덕 블루로드 등 지역 명소를 남녀가 함께 트레킹을 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1박2일의 첫만남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8-9월에 걸쳐 진행되는 1기 7주 동아리 과정과 10월에 시작되는 2기 한 달 체류형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기 과정은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장을 둔 98-88년생을 대상으로 총 70명의 신청자를 모집해 1차 서류심사, 2차 영상 면접을 거쳐 남자 15명, 여자 12명이 최종 선발됐다.

참가자들은 첫날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내가 꿈꾸는 이상형 카드’를 활용한 자기소개, 블루로드 D코스를 경유한 해안 트레킹 및 미션 프로그램, 팀별 7주 버킷리스트 세우기, 팀별 컨셉 사진 찍기 등 팀별 활동을 수행하고, 다음날엔 사랑의 피크닉 도사락 만들기 등을 함께 즐기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참가자들은 앞으로 관여대와 메타세쿼이아길 등 지역 명소에서 블루로드 미션 트레킹, 해변 트레킹, 숨은 지역 명소 찾기 등 다양한 조별 미션을 수행하며 새로운 만남의 가능성을 가능하게 된다.

이번 1기 과정은 조별 활동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커플 매칭 해단식을 끝으로 프로그램이 마무리되며, 2기의 경우는 다음 달 18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조여은 기자

포항 농업인,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연찬회

모범 회원 12명 표창 수여

포항시는 한국농촌지도자포항시연합회와 한국생활개선회포항시연합회가 20일 시청 문화동 대강홀에서 ‘2024년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한마음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단체 회원 및 내빈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연찬회에서는 포항 농업발전과 단체 활성화에 모범을 보인 회원 1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참석자 전원이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

농작업을 위한 ‘농업인 안전365’ 실천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행복한 삶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라는 주제로 최경희 교수의 인문학 특강도 진행됐다.

이어진 오후 시간에는 전문사회자의 진행으로 15개 읍면 지역 회원의 화합을 도모하는 ‘화합 한마당 잔치’가 열려 회원 간 단합과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회원들은 발표 능력과 자기자랑을 선보이며, 포항시 각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강덕 시장은 “지역의 농업인이 농촌 교령화, 기후위기 등 어려움을 이겨내고, 융복합산업화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며, “포항 농업의 희망과 미래를 농촌지도자회원과 생활개선회원이 함께해 달라”고 전했다.

장해주 한국농촌지도자포항시연합회장은 “회원들이 앞장서 농촌의 활력을 되찾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미숙 한국생활개선회포항시연합회장은 “포항 농업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자”고 말했다.

포항지역 가정서 홈스테이 체험·홍해중 방문

일본 마이즈루시 중학생들 지역서 문화체험 등 진행

포항시의 해외 교류도시인 일본 마이즈루(舞鶴)시 중학생 14명과 학교 관계자 3명, 마이즈루시 공무원 2명 등이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포항을 방문했다.

홈스테이와 문화 체험과 학교 교류를 위해 포항을 찾은 마이즈루시 일행은 17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홈스테이를 제공하는 가족과의 환영식을 가졌다.

환영식에서 윤천수 관광산업과장은 “홈스테이를 제공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며, 특히 마이즈루시 중학생들이 이번 홈스테이를 계기로 한국인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호스트 패밀리는 지난해 7월 마이즈루시를 방문해 홈스테이를 체험했던 지역 내 중학생 가정이다.

최해련(영일중 3학년) 학생의 어머니는 “지난해 마이즈루시 홈스테이에 참가한 딸이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와 소중한 추억이 됐다”

며 “일본 친구에게도 우리 딸과 같은 즐거운 추억을 남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19일 일행들은 학교 교류를 위해 흥해중학교를 방문해 다양한 수업에 참여하고 함께 급식을 먹으며 우정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마이즈루시 학생 대표인 사쿠라이 아야노 양은 “언어의 벽은 있지만 함께 소통하려는 마음과 열정으로 충분히 교류가 가능했다”며 “홈스테이와 학교 교류를 통해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따뜻함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와 마이즈루시는 지난 2011년 7월에 상호발전을 위한 경제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크루즈 및 페리 시범 운항,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등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해외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생 교류 및 홈스테이는 2013년도부터 상호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가 8번째 교류다.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청도군보건소 코로나 예방 홍보

청도군은 19일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손씻기,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위한 주민홍보를 청도시장에서 실시했다.

청도군은 지역 내 코로나-19 치료제 조제기관으로 지정된 7개소 약국의 치료제 사용량과 재고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수시로 파악해 수급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치료제 필요량은 경상북도와 질병관리청에 즉시 요청해 해당 약국에 배부하는 등 주민들의 코로나-19 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 3단계,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1일 3회, 매회 10분 이상)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남중구 보건소장은 "8월 말까지 코로나-19 환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세를 찾을 때까지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불교대학 쌀 나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경산도량은 19일 백중 회향일을 기념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 20포(20kg)를 기탁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경산도량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과 성금을 기탁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도 잊지 않고 성품을 기탁하며 나눔을 이어갔다.

신도회 일동은 "백중 회향을 기념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위로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고,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승일 서부1동장은 "다년전 잊지 않고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경산도량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하신 물품과 따뜻한 마음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청도군, "제1회 유기견 해피 체인지" 성료

전국서 200여명 참가해 유기견 의식 전환 캠페인 7마리 유기견 새 보금자리

청도군은 17일 청도신화랑풍류마을에서 열린 유기견 인식개선 캠페인 「청도군 제1회 유기견 해피 체인지」 행사가 전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제1회 유기견 해피 체인지 행사는 매년 8월 셋째 주 세계 유기동물의 날을 맞이하여 여름 휴가철 급증하는 유기동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위해 유기견에 대한 생명존중과 반려인의 의식 전환을 목표로 기획됐다.

이 행사는 경상북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개최됐으며, 청도군 DAS 청년문화예술 봉사단체와 협력하여 행사 프로그램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하고 유기견에 대한 의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행사를 추진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유기견과의 랜덤데이트(매칭데이) △유기견 입양절차 및 펫테더 교육 △유기견 입양 가족의 사연 및 작품 전시회 △유기견 가족맞이 이벤트(꽃단장 프로젝트) △청도군 유기견봉사단 창단식 및 표창수여가 진행됐다.

이번 참가자 중에는 외국인 참가자와 제주도에 비행기를 타고 찾아온 이들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사전 참가신청자 20팀 중 7팀이 현장에서 유기견을 입양하여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기쁨을 나누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한 가족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것이 많은 책임감을 요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유기견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인식 전환을 통해 새로운 가족구성원으로 입양함으로써 우리 가족

이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풍성해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로 유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입양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앞으로도 반려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 소공원 조성 등 다양한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반려인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성주군, 시군역량강화사업 주민만족도 높아

복지회관 연계 주민참여 강화

성주군은 지난 19일, 성주군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용암면 복지회관의 서예교실과 난타교실을 깜짝 방문하여 무대위속에서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성주군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기초성원 시설물인 복지회관과 연계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농촌의 대표적인 S/W사업이다.

지난 7월부터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용암면에서는 서예교실과 난타교실, 선남면에서는 한지공예교실과 난타교실, 대가면에서는 요가교실과 풍물교실, 초전면에서는 목공예교실과 원예가드닝교실을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강



사인과 수준높은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어 주민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얻고 있다.

9월부터는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지는 마을에 '찾아가는 문화·배달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수료생 성과 공유회', '지역리더 워크숍' 등과 같은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

이 예정되어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주민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복지회관을 방문하여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행복한 성주군민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천 저소득 어르신 지원

고령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20일 거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 4명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했다.

동 사업은 고령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중위소득 100% 미만인 장애인과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이동 보조 및 휴게 의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행보조차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야외 활동 및 활기찬 일상생활 유지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됐다.

김영태 고령면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행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행보조차를 준비했다"며 "고령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앞으로도 지역 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노인일자리 공익형 사업 참여 어르신 교육

영천시니어클럽 1606명 대상

영천시는 영천시니어클럽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공익형 사업에 참여 중인 어르신 1,606명을 대상으로 영천시니어클럽 3층 강당에서 안전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은 총 26회이며, 6일부터 26일까지 기간 중 14일간 오전, 오후 2차례로 나눠 각 사업단별로 실시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 금융피해 예방과 사회서비스형 나눔자원관리 참여자의 자원순환 실천을 주된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다.

영천시니어클럽에서는 어르신들의 지역봉사활동기회를 넓히고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총 2,174명의 어르신들이 공익형 14개 사업단, 사



회사서비스형 10개 사업단, 시장형 8개 사업단에 참여 중이다.

이민철 문화관광복지국장은 "영천시니어클럽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어르신들은 더운 여름날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서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령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9월 13일 개최

자연경관 · 생태자원 홍보

고령군은 9월 13일 오후 7시 30분 다산면 좌학근린공원에서 '고령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은 낙동강의 자연경관

과 생태자원을 널리 알리고, 낙동강 관광·레저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군을 포함한 낙동강 주변 7개 시군인 구미, 상주, 안동, 예천, 의성, 칠곡에서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

고령군이 주최하고 경북매일신문이 주관하는

청도군, 2024 명품대구경북박람회 홍보관 운영

대구·경북 총 29곳 참여

청도군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2024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 참가해 청도군의 우수한 관광자원 및 지역 명품 농특산물을 홍보할 계획이다.

『2024 명품대구경북박람회』는 대구경북의 명품 관광·축제·산업·교육·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 및 정책을 홍보하는 박람회로, 대구광역시 6개 기관과 30개 홍보 부스와 경상북도 23개 기관과 102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총 29개 기관, 132개 홍보부스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도군은 행사장 내 홍보부스 1개소를 운영하여 청도 관광 9경(△청도읍성,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운문사, △삼리하안옥마을, △낙대폭포, △유등연지, △와인터널, △청도레일바이크) 중심

의 대표 관광 명소 소개와 청도군농특산물연합회와 연계하여 지역 농특산물(식혜, 감말랭이, 감와인 등)을 박람회 현장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부스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농특산물을 시식할 수 있도록 시식 코너를 운영하여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동시에 제공하여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문화·예술·관광의 허브도시 청도의 브랜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지역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청도를 찾을 수 있도록 청도군의 맛과 멋을 알려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 관광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성주 8월 다정다감 프로그램

성주군 이웃사촌복지센터는 19일 ~ 23일까지 4개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정다감 프로그램 '뚝뚝~힐링왔어요~!'를 진행한다.

다정다감프로그램은 <이웃과 손잡고 이야기해요>라는 주제로, 마을주민들이 함께 체험 활동을 통해 소통과 힐링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을 내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뜻에서 마을별로 월 1회씩 운영되고 있다.

조여진 기자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칠곡



김천시 군의회, 업무 연찬

김천시에서는 지난 19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세무담당자 역량 강화 2차 업무연찬을 실시했다. 읍면동 세무업무담당자의 정기 인사로 인한 담당자 변경과 타업무 병행으로 세무업무에 대한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해 세무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계획하게 됐다.

세정과 팀별 세목 담당자가 전문 강사가 돼 지방세 기초 이론 및 실무교육, 과세 현황 파악·조사 방법, 지방세 체납처분 기본 이론·절차 및 업무처리 요령 등을 실무적으로 알기 쉽게 교육했다.

업무 연찬을 통해 읍면동 담당자의 세무 업무에 대한 역량이 강화됐으며 세법 개정 등 타세목 업무 연찬을 통해 담당자 상호 간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성화 세정과장은 "이번 업무연찬을 통해 세무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이 높아져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추계 전국 유·청소년 유도대회

한국초중고유도연맹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유도회, 문경시유도회가 주관하는 '제52회 추계 전국 초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겸 국제 유·청소년 파견 선발대회'가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문경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초중고유도연맹에 등록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유도 선수 2,000여 명이 남녀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누어 5일간 열전을 펼치게 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국제 유·청소년 파견 선발전을 겸하고 있어 한국 유도의 미래를 책임져 나갈 선수들의 열띤 추제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회 개회식은 19일 11시에 신현국 문경시장장을 비롯한 한국초중고유도연맹 심판보 회장, 문경시의회 이정길 의장, 도시의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열려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전국 초·중·고등학교 유도 선수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장은 "최대 규모의 유도 대회인 만큼 참가하는 선수들이 각자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며, 대회를 마치고 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문경새재와 봉명산 출렁다리 등 아름다운 문경의 관광지도 구경하시고 화합을 돈독하게 하여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구미시, 제26회 구미전국청소년연극제 개최

25일까지 소극장 공터다 진행
2022년부터 전국 단위 확장
7개 도시 총 14명 본선 경연

구미시는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 소극장 공터다에서 (사)한국연극협회 구미지부 주관으로 「제26회 구미전국청소년연극제」를 개최한다.

이번 연극제는 7개 열정으로 뿔뿔 뿔 전국 청소년들이 한데 모여 연극 경연을 펼치는 자리로, 지난 2022년부터 전국 단위로 규모를 확장하며 해마다 참가팀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구미, 상주, 칠곡, 당진, 의정부, 대구 등 6개 도시에서 총 13개 팀이 출전하여 열띤 경연을 벌인다.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독백 페스티벌에는 구미, 의정부, 칠곡, 거창, 창원, 태안, 당진 등 7개 도시에서 총 14명이 예선을 거쳐 본선 경연에 나선다.

시상은 공연의 창의성과 팀원 간 호흡 등을 심사하여 단체상 3개 팀(대상·최우수상·우수상), 개인상 18명(대상 1명, 최우수연기상 3명, 우수연기상 13명, 지도교사상 1명), 독백 페스티벌 4명(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성주봉 HOT 페스티벌 열려

2024년 성주봉 HOT 페스티벌이 17일 상주시 한방산업단지 야외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성주봉 HOT 페스티벌은 상주시 한방산업단지를 홍보하고, 성주봉자연휴양림과 한방산업단지를 찾는 휴양객과 상주시민에게 한바탕 놀이마당을 선사하고자 새상주로타리클럽(회장: 황정원)의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어린이 무료체험 프로그램, 청소년댄스경연대회, 시민노래자랑, 보물찾기, 인기가수 초청 공연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축제에 함께한 방문객은 강렬했던 울려퍼진 무대위에서 공연자들의 열정, 함께한 방청객들의 즐거움, 성주봉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 같다고 했다.

황정원 새상주로타리클럽 회장은 "먼저 행사를 맡겨 주신 강영석 시장님 및 상주시에 감사드리며, 준비에 발 벗고 나서 주신 새상주로타리클럽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가족애를 느낀다. 앞으로도 새상주로타리클럽은 상주의 대표 봉사단체로서 열심히 활동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생업으로 바쁜 중에도 행사를 준비한 새상주로타리클럽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축제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미시, 제2구미캠핑장 조성한다

구미시가 야의 활동과 관광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제2구미 캠핑장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캠핑장은 2025년 12월 개장을 목표로 총 36억 원을 투입하여 낙동강체육공원 내 워터파크와 양호대교 사이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은 자연 친화적이며 체류 지향적인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변의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하고, 낙동강 관광 인프라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특히 50면의 오토캠핑 공간과 다양한 가족 체험 및 어린이 체육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또한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제2구미 캠핑장은 방문객들에게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하며, 기존 구미 캠핑장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발생하는 예약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더 많은 이용자들이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 관광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제2구미 캠핑장 조성으로 구미시 관광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것이며, 방문객들에게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다"고 했다. 송명주 기자

할 계획이다. 연극제 일정은 18일 도송중의 <데스데이>를 시작으로 19일 당진 연합동아리 메르헨의 <하튼시크릿>과 대구 정화여고의 <보이지 않는 흉기>, 20일 구미 송정여중의 <아카시아 꽃잎은 떨어지고>와 구미여고의 <새로 만들어 갈 나>, 21일 상주여중의 <같이 살자, 좀!>과 대구 달구벌고의 <창립 기념일>, 22일 의정부 경민고의 <화연의 순간>과 구미여중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23일 칠곡 석적중의 <퓨전 마당극 '심정전'>과 구미 사곡고의 <도시락 속 머리칼>, 24일 칠곡 북삼중의 <꿈의 팔레트>와 칠곡 석적고의 <여우비>, 25일 독백 페스티벌과 시상식 순으로 진행된다.

김영심 (사)구미연극협회 지부장은 "연극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중에 구미 외 지역 출전팀들이 늘어나 청소년연극제가 전국 대회로서의 틀을 잡아가고 있어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연 일정 및 연극 공연 관람에 대한 문의는 (사)한국연극협회 구미지부(☎054-444-0608)로 하면 된다. 송명주 기자

제26회 구미전국 청소년연극제

2024 8.18(일) ~ 25(일) 소극장 공터다

18(일)	19(월)	20(화)	21(수)
13:00	19:00	13:00	19:00
히든시크릿 당진청소년연극 수다벅스 2호점 [메르헨]	데스 데이 도송중학교 [ZIZON 연극부]	아카시아 꽃잎은 떨어지고 송정여자중학교 [송초이]	같이 살자, 좀! 상주여자중학교 [청춘별하]
22(목)	23(금)	24(토)	25(일)
13:00	19:00	13:00	19:00
화연의 순간 경민고등학교 [논북선]	퓨전마당극 '심정전' 석적중학교 [해움]	꿈의 팔레트 북삼중학교 [라리스콜]	독백페스티벌 시상식 (15:00)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 [BNG]	도시락 속 머리칼 사곡고등학교 [소소]	여우비 석적고등학교 [문우연]	

상주의서농협, 원황배 미국 수출 한다

지난해 배 1217톤 판매 실적

상주시 의서농협은 19일 의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강영석 시장, 지역구 도·시의원, 회원농가, 수출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재배된 원황배 미국 수출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수출길에 오른 배는 13.6톤(7천만원 상당)으로 ㈜스마일프레쉬(대표 남병주)를 통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인교포와 현지인을 상대로 판매될 예정이다. 상주시는 지난해 배 1,217톤(60억원 상당)을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이는 12개 배 수출국 중 최고로 많은 물량이 수출됐다.

의서농협 대미수출단지는 지난 2005년 정부 지정 원예전문생산단지로 승인받아 꾸준한 수출확대로 국내시장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올해에도 원황, 화산, 신고등 상주배

의 지속적인 수출을 통해 미국시장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올해 높은 국내 가격에도 불구하고 배 수출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신 생산농가 및 수출관계자들에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 앞으로도 품위 높은 상주배 생산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며,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화의 성지 문경서 촬영한 <문경> 특별시사회

지역에서 영화 대부분 촬영 주연 배우 참석해 의미 더해 고모산성·윤필암 등 장소 답아

문경시는 지난 5월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부문에 초청돼 호평받은, 경북 문경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문경>의 8월 28일 개봉이 확정됐으며, 개봉 하루 전인 27일 메가박스 문경에서 지역민을 위한 특별시사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특별시사회는 제작사 비아신평커스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문경시를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를 소개하고 촬영에 협조해 준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영화 상영 후 GV(관객과의 대화)에서 신동일 감독과 함께 류아벨, 조재

경, 최수민 등 주연 배우가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영화 <문경>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번아웃이 온 직장인 문경이 휴식 차 찾은 경북 문경에서 비구니 스님 가운과 강아지 길순과의 동행을 그린 영화이며, 문경에서 영화의 대부분을 촬영하고, 고모산성·윤필암·선유동계곡 등 지역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최근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의 인기로 촬영지에 대한 SNS 반응이 뜨겁고 실제 관광객이 많이 증가했다며, 이번 영화에서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많은 관광지와 마을 풍경이 매우 아름답게 담겨있어 영화를 계기로 문경시 전역이 골고루 여행객의 관심을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많은 관객이 문경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며 힐링하고, 영화 속 이야기를 통해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의 모든 '문경'이 치유받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김천시, 2024년 중기 운전자금 추석 분 지원

200억원 자금 규모 대상 4% 이차보전, 9월 6일까지

김천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2024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석 분을 2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운전자금 지원 시기는 9월 6일 명절 정기분과 4·10월 수시분으로 나누며, 오는 추석 명절 정기는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김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 원 융자 추천이 가능하며, 일자리 창출 기업, 내고장 TOP 기업 및 이달의 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우대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www.gfund.kr)을 통하여 온라인 접수 또

구미시 을지연습 전시현안 과제토의

구미시는 20일 을지연습 2일차를 맞아 제1차 안전상황실에서 전시현안 과제토의를 실시했다.

이번 토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가상 상황을 주제로, 유관기관 간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미시는 국가 중요 시설 중 하나인 구미정수장 폭탄 테러에 대한 종합 대책을 주제로 토의현연을 진행하였다.

구미정수장은 취수장에서 원수를 끌어들이며 주민들의 공업 및 생활용수로 변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비상시 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이와 같은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 특작부대 소탕 대책 △비상 급수 대책 △사상자 구조 및 의료지원 대책 등이 포함되었으며, 제5837부대 1대대 등 3

는 김천시청 투자유치과에 방문·접수할 수 있으며, 세부 운용계획 공고는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광현 투자유치과장은 "최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김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협력 은행을 통해 융자 대출을 하면 시에서 대출금리 일부를 1년간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경호 기자

개의 유관기관과 구미시청 총무과를 포함한 8개의 관련 부서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소방서, 수도과 등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지원과 복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을지연습은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동안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전시현안 과제토의, 전시예산 편성 훈련, 전시대비 실제 훈련,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다. 송명주 기자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의성



안동·도전! 청림 골든벨 개최

안동시는 19일 안동시청 대동관 낙동홀에서 직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무터 실전하는 청림, 도전! 청림 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번 '도전! 청림 골든벨'은 2024년도 신규 임용자·승진자, 회계·건설·인허가 담당자 등 MZ공무원이 주로 참여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반부패 관련법규와 안동시의 청렴시책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됐다.

접수 단계 방식 골든벨, 서바이벌 골든벨, Final Round 골든벨 등 다양한 형식의 퀴즈대회에 직원들이 단계별로 참여했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수여해 수혜복구 등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잠시나마 심포가 되는 자리였다.

특히, 본 행사에 앞서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 직원들이 함께 청렴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송영주 기자

안동 여행기념품 공모전 시상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안동의 상징성과 상품성이 결합된 경쟁력 있는 여행기념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제3회 안동여행기념품 공모전」을 열고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8월 20일(화) 안동시청 청백실에서 개최한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74개의 상품이 접수됐으며, 1차 온라인 심사와 2차 전문가심사를 통해 최종 20점의 상품을 선정, 시상한다. 수상작 20점에 대해서는 향후 각 상품에 맞는 컨설팅을 통해 상품화와 판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자투리 색동원단을 활용한 안동탈(시리즈) 염서'는 안동의 전통탈 이미지와 트렌디한 아날로그 감성을 결합해 제작한 염서 세트로 구매성 및 실용성과 더불어 안동의 이미지 홍보 부분에 큰 점수를 받았고, MZ세대를 겨냥한 제비원 석불 부처키링 등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안동시청 1층 로비에 8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시행된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대상으로 패키지, 마케팅, 사업화 지원 등 각 수상작에 맞는 컨설팅을 시작해 관광 시장 판매 기반을 구축하고 팝업스토어 및 온라인 판매도 시행할 예정이다.

안동시와 (재)한국정신문화재단 관계자는 "안동 여행기념품 공모전을 지속적인 판매 기반 지원으로 안동의 관광기념품 시장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영주 기자

봉화가 낳은 천재 학자 괴담 배상열 연구 진행

한국국학진흥원, 학술대회 개최
천문과 지리·역학·산학에 조예
영남학과 학문 심화·외연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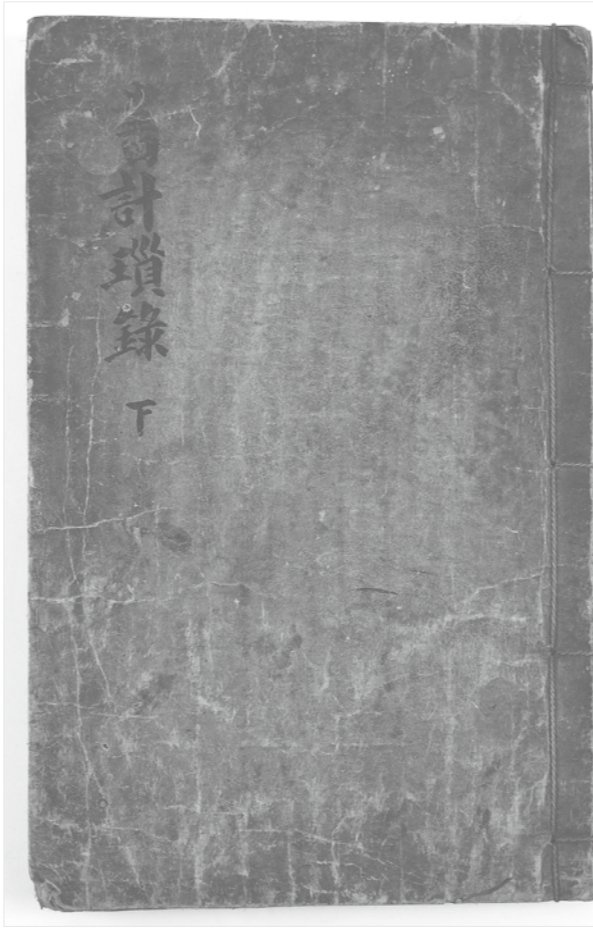
한국국학진흥원은 봉화군과 함께 21일 오후 2시에 봉화군청소년센터 대강당에서 "괴담 배상열의 학문과 사상"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봉화가 낳은 천재 학자 괴담 배상열의 천문과 지리, 역학과 산학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괴담 배상열(1759~1789)은 봉화에서 태어나, 15세 전후에 독학으로 깨우쳐 천문과 지리, 역학과 산학에 뛰어났고, 23세 때 대산 이상정의 문하에 나아가 배운 뒤로는 성리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30세의 나이로 요절했지만, 『도학육도도학육도』, 『서계쇄록』, 『사서의의의四書疑義』, 『성리찬요性理纂要』, 『사서찬요四書纂要』, 『계몽도해啓蒙圖解』, 『심경품목心經稟目』, 『음수제요乙數提要』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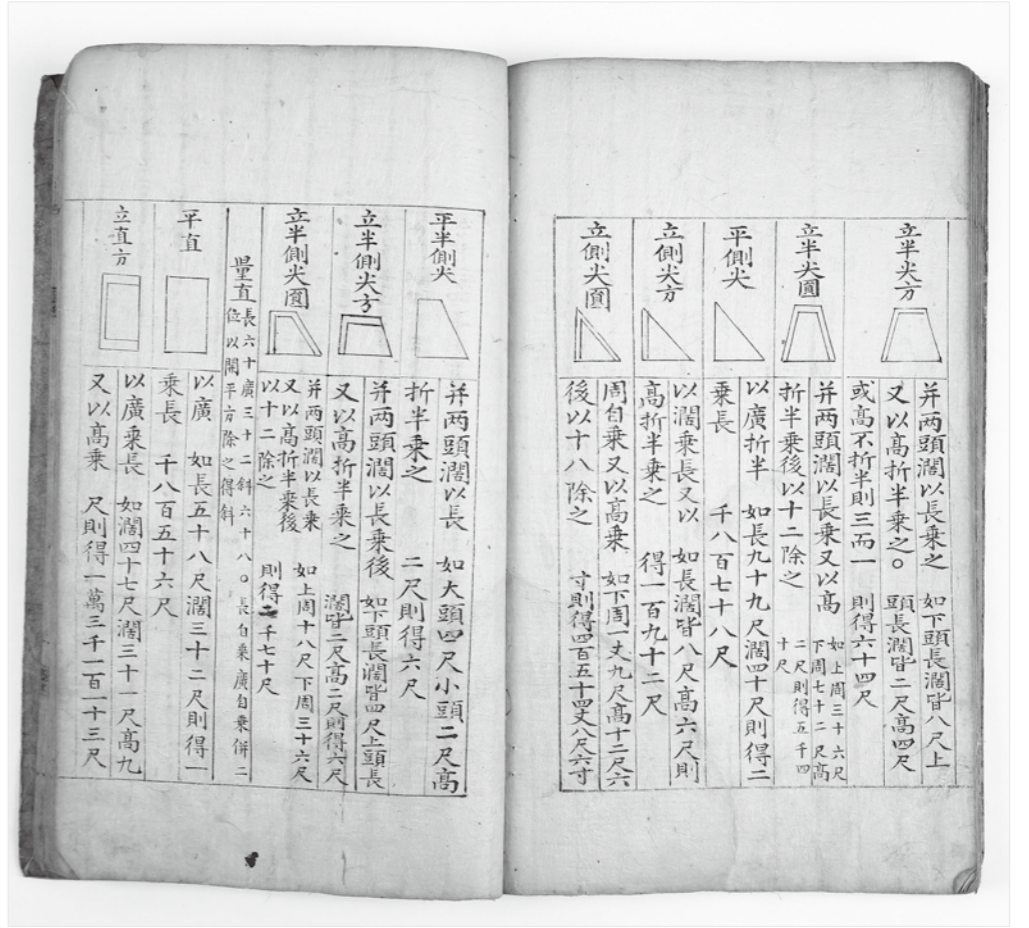
특히 그는 16세에 천문을 관측하는 혼천의渾天儀[선기옥형]를 만든 이후, 21세와 27세에 다시 제작하고 수정하는 등 천문 분야에서 놀라운 천재적 역량을 발휘하였다. 28세 때 편찬한 『서계쇄록』 하편은 수론數論에서 시작하여 각종 산법算法에 이르기까지 두루 아우른 본격적인 산서算書로, 배상열의 수리 사상이 전면적으로 드러난다. 앞선 시기에 나온 최석정의 「구수략九數略」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구체적인 산법과 운용의 측면에서 형이상학적 색채를 철저히 탈피하였다는 점에서, 18세기 말 조선 지식인들의 변화된 수리 사상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자 5명이 참석하여 괴담 배상열의 생애와 교유관계는 물론, 성리학과 역학, 천문 및 수리 사상에 대해 총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먼저 박관수 교수(충북대)는 배상열의 생애와



교유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의 상수학적 우주론 연구를 전체적으로 소개한다. 이영호 교수(성균관대)는 배상열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완성한 『도학육도』를 통해 그의 생애 후반기에 학문의 주축이었던 주자학적 사유를 고찰한다. 엄연석 소장(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은 배상열의 역학과 성리학을 아우르는 도산학이 조선 후기 역학과 성리학에서 지니는 특징과 지위를 규명한다. 김삼혁 박사(한국천문연구원)는 조선의 혼천의 제작 역사를 개략적으로 살피고, 그가운데 적도환赤道環에 28수의 별자리를 그려 넣은 배상열의 혼천의만이 지닌 특징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강민정 연구원(한국고전번역원)은 18세기 초 최석정의 「구수략」과 비교 분석하여 『서계쇄록』의 수리



사상이 지닌 특징을 살펴본다. 18세기 영남학과 지식인들은 대체로 경세적·실용적인 학문보다는 형이상학적인 성리학과 변소환 예학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배상열이 추구한 학문은 18세기 사상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영남학과 학문의 심화와 외연 확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지역에 흩어져 훼손·멸실 위기에 처해 있는 국학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현재 64만여 점에 달하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기에 중요하다. 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해마다 각 지역의 인물을 발굴하여 역사인물선학술대회를 개

최하는 한편, 기타 문종 및 지지체와 함께 다양한 연구 및 학술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지역의 정체성 제고와 인문환경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은 "봉화가 배출한 괴담 배상열 선생은 천문과학 분야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천재적 역량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성리학에도 깊은 이해를 보여 우리 지역에서 특출한 학문적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앞으로도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역사 속 인물들을 찾아내 연구와 전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상기 기자

(사)경북여성기업인협회 의성지회, 역량강화 교육

(주)환승공조 비롯 7개 업체
비영리법인 2021년 6월 창립

의성군은 (사)경북북도여성기업인협회의 의성지회(지회장 이진영)가 지난 19일 의성군청년센터에서 여성기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의성지회장(주)환승공조 이진영 대표를 비롯한 7개 업체의 여성기업 대표들은 이번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유연성과 직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법 등 현대 직장 내에서 요구되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



하는 한편, 여성 대표로서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과 극복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경북북도여성기업인협회의 의성지회는 관

내 제조업 운영 여성기업인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으로 2021년 6월 28일 창립되었으며, 여성기업인 간 네트워크 형성과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지역제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기업가 정신으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등 의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애쓰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 덕분에 의성군이 더더욱 활기를 띤다"라며 "앞으로도 여성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고민해보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예천군, 여름방학 건강교육

예천군 건강증진지원센터는 20일 복합커뮤니티센터 4층 다목적강당에서 관내 초등학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편식 예방'을 주제로 한 여름방학 건강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건강관 심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라이브 관객 참여형 인형극 <엘리아와 함께하는 골고루 먹기 대작전>으로 진행했으며,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 흥미를 유발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인형극은 달고 짠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거나 빠른 마법에 걸린 주인공 잭이 착한 마법사 엘리아의 마법과 함께 올바른 식습관, 손 씻기를 통해 어린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다. 송영주 기자

영주시, 바리스타 핸드드립 대회 성료

'허리보호대 쪼그리' 상품
농업인에 600개 상당 전달

영주시 선비세상에서 지난 10일과 17일 양일간 열린 '품격의 향과 맛을 즐기는 바리스타, 핸드드립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704명의 참가자가 실력을 겨뤘다. 예선을 뚫고 올라온 15명의 결선 진출자는 지난 17일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대회는 바리스타 부문과 핸드드립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바리스타 부문에서는 에스프레소 추출부터 카푸치노 제조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으며 참가자들은 각자의 노하우로 커피의 풍부한 향과 깊이는 맛을 선사했다. 핸드드립 부문에서는 개성 있는 추출 방식으로 커피의 다채로운 맛을 끌어내는 참가자들의 모습에 관객들은 감탄을 자아냈다.

대회 결과, 바리스타 부문 1등에는 웅성환 씨가 선정돼 상금 100만 원을, 핸드드립 부문 1등은 민철홍 씨가 차지하며 상금 50만 원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연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현장에서 진행된 커피 체험 및 로스팅 체험 행사에는 2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했다.

대회를 지켜보던 한 관람객은 "우리 딸 꿈이 바리스타인데, 이렇게 직접 대회 현장을 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특히 담당자분과 심사위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감사했다"며, "직접 커피 원두도 볶아볼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다"라고 전했다.

(재)영주문화관광재단 김덕우 대표이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영주의 품격 있는 커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 특색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전상기 기자

영주호 하트섬 관광콘텐츠 발굴 착수보고회



댐 주변 개발 기본구상 연계

영주시는 20일 '영주호 하트섬 관광콘텐츠 발굴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영주호 하트섬을 영주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로 진행됐다.

시는 영주댐 준공 이후 영주호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중에서도 하트섬(용마루1공원 일원)은 관광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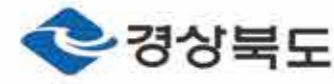
이에 시는 하트섬을 관광 명소화하고, 관광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신규 사업발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이미 수립된 '영주댐 주변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과 연계해 하트섬 주변의 현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본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하트섬을 중심으로 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하트섬 현황 및 대상지 분석, 최신 트렌드 및 사례 분석, 그리고 하트섬에 적합한 관광콘텐츠 도출과 배치 구상안 등 발표와 향후 과업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호 하트섬의 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한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영주시가 국내외 관광객에게 더욱 매력적인 여행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2025 APEC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가
최적지입니다

지금 경주는 APEC 중
우리가 함께 한 경주
세계로 향하는 경주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GYEONGJU

APEC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y Cooperation)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한 국제회의의 기구입니다.

21개국 정상 및 대표단, 기업인 등 6,000여 명이 참석합니다.

